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1 주차] 09 월 25 일 21 : 00	모임장소	상상파크
팀명	삼조	멘토교수	김선용
참여자	이지원, 박예진, 최혜민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p. 35 ~ p. 184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 이지원 : (31p)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작가는 뇌물과 기부의 부정 스캔들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했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예진 : 공리주의 적 관점으로 보면 간당간당한 성적의 학생이 거액 기부로 대학 입학은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기부한 돈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기부자는 대학에 입학하면 되므로 행복이 배가 된다. 현저히 합격선에서 떨어지는 학생도 아니고 간당간당한 정도면 동기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혜민: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입시 방법은 해당 대학에서 대중에게 제시하는 즉, 대학에 지원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루트를 따라서 대학의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자질을 인정받는 것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최혜민 :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의무를 따질 때, 자신의 불운에 책임져야 할 사람과 단지 운이 없었던 사람을 구별해야한다"는 능력주의의 담론에서 사람들을 구분할, 모두가 동의할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지원 : 기준을 정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운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운이 없었던 사람'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예진: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까지 많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까지 모든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어떤 사람은 단지 운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고 말하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최혜민 : 만약 내가 자녀의 대학 입시에 뒷돈을 사용할 만큼 부유한 경제적 위치에 있다면 나는 자녀를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도 공정하지 않기에 미련없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지원 :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중에 뒷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저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식의 명예도 실추될 것이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기에, 시간이 지나도 자녀에게 크고 작은 피해가 갈 것입니다.

박예진: 조국 사태를 보니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들 알게 된다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거절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예진: 시장주도적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는데 지난 역사를 볼 때 이 불평등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지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청산을 하였다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착취를 통해 얻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그들의 재산을 사회 발전에 썼다면 불평등을 완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민 : 세계화가 시작되던 시점에서 세계화의 이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불러올 어두운 이면(경제적 불평등, 1차산업의 퇴보 등)도 고려했어야한다.

-박예진: 책에선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배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취업시장과 승진시기에 흔히 쓰이는 능력위주가 책에서 말한 능력주의와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다르다고 보시나요?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이지원 : 책에서의 능력주의와 실제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격차는 돈에서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1타 강사에게 과외를 받고 면접 준비 등을 사교육을 통해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독학을 합니다. 이 둘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부유한 사람이 더 좋은 기업을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격차를 통하여 패배하였다는 생각에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 좋은 성적을 낸 승리자라는 생각을 하여 이 둘의 격차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최혜민 : 비슷하다고 본다. 승자들이 오만을 느끼는 이유는 본인의 취업 성공이 오로지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운을 잊고 성취감에 취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 성공이라는 좁은 자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결국 승자는 오만하며 패자는 굴욕을 느끼는 굴레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진: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난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심하다고 보시나요?

이지원 :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서 비합리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내거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민 :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실제 국가 경제의 부흥에 필요한 정책이 아닌 대중의 입맛에 맞고 대중이 호응해줄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것들을 보면 포퓰리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상 좌측의 인물부터 이름을 하단에 표기할 것.

인증 사진



이지원, 최혜민, 박예진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2 주차] 10 월 13 일 17 : 00	모임장소	상상베이스 세미나실
팀명	삼조	멘토교수	김선용
참여자	이지원, 박예진, 최혜민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p. 185 ~ p. 244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최혜민 : 하이에크가 지적한 "우리의 시장 가치는 우리 능력의 척도일 수 없다."의 생활 속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박예진: 사회 초년생의 월급은 대략 200만원 안팎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에서 평가한 사회초년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받는 과소평가된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기회를 가졌고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낼 수 있기에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 우리가 가진 능력이 시장에서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장 가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 가치와 능력의 척도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기업의 시장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원 : 하이에크는 경제적 보상은 능력의 문제나 업적의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는 능력이 적어도 많은 돈을 버는 자(직위에 비해 무능력한 사람) 능력이 많아도 적은 돈을 버는 자(직위에 비해 유능한 사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경제적 보상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08)

박예진: 하이에크에 동의합니다. 투기로 인해 큰돈을 벌어들인 사람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기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투기에 성공한 사람보다 능력이 적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무능력자가 능력있는 약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기에 하이에크에 더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혜민: 경제적 보상의 의미하면 부와 권력이 단편적으로 떠오릅니다. 더욱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얻은 부와 권력을 통해 그들이 누릴 일상 그 자체도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이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고민 없이) 사용할 고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서서 그들이 갖게 될 원초적인 여유, 경제적 풍요 없이는 누리지 못할 문화적 기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능력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얻는 경제적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 롤스는 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기엔 불충분하다고 말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운에 따른 재능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평등'을 주장하며 승자가 남들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보상이 시장에서 부풀려지면 공동체와 나누는 것인데, 우연한 배분이 불운한 사람에게 이롭도록 하는 사회에서 결과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혜민: 우연한 배분이 불운한 사람에게 이롭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복지, 소득 재분배 등의 형태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 불리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 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익을 보이는지는 또다시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정책들로 롤스가 제시하는 결과 평등의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실패자들은 재능의 부재와 더불어 여러 여건의 불리함으로 실패를 겪을 수 있으며 그들이 노력을 일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타고난 재능의 유리함을 갈고닦은 노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과 평등 역시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박예진: 능력주의가 사람들을 승리주의로 이끌고 각각 오만과 굴욕감을 준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말이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쓰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최혜민: 승자와 패자가 나뉜 해당 경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경쟁의 과정에서 승자의 부모에 의해 불합리한 개입이 있었다 해도 이는 승자가 성공적인 인생의 과정에 있는 부모 밑에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며 패자는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두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즉,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감을 주는 것이 경쟁에서의 승패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승자가 오로지 오만에만 빠질까?'를 생각해보면 개인에 따라 승자도 부모에 의한 결과에 대해 부당함과 수치, 스스로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의 그늘에 있다는 굴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지원 :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능력주의가 만연해있습니다. 입시, 취업 등 중요한 부분에서도 능력주의가 매우 강조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능력주의가 오만과 굴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진: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책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로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정책들을 내세웠었는데 능력주의가 정치계에 적용될 시 포퓰리즘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최혜민: 정치인들의 당선 혹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만을 고려해 본다면 점차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성행할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어있는 대중들에 의해 인기투표식 정치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다.

이지원 : 저는 능력주의가 포퓰리즘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엘리트 특권층에 의해 착취당하는 일반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소통의 형태입니다.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능력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만과 분노를 이용하고, 엘리트 계층을 적으로 몰아서 대중을 동원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엘리트 계층과 대립하는 대중의 이익을 과장하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협력과 조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증 사진	※ 사진상 좌측의 인물부터 이름을 하단에 표기할 것.
-------	-------------------------------



최혜민, 박예진, 이지원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3 주차] 10 월 28 일 20 : 00	모임장소	온라인
팀명	삼조	멘토교수	김선용
참여자	이지원, 박예진, 최혜민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p. 245 ~ p. 304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이지원 :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출신이기 때문에, SAT 관련 부분을 우리나라에 대입해보았다. SAT는 단 1번의 시험을 치루는 것과, 사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이 수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내신과 미국의 내신과는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 순위를 매기는 부분과 같은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SAT 점수를 중시한다면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하고 불우한 가정 자녀들에게는 불리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 모두 점수와 부의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최혜민 : 우리나라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수능과 내신 모두 부모의 부와 연관이 있고 특히 내신의 경우 더욱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신의 경우 성적과 함께 교내외 활동이 평가 요소로 적용되는데 교외 활동처럼 외부에서 정보를 얻어야 참여가 가능한 활동은 부모가 자녀의 입시에 관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물론 학생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참가할 수도 있지만) 내신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수능처럼 오로지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도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연관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생활 내내 쌓아와야하는 교내외 활동이 가지는 중요도를 고려하면 내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박예진: 저도 수능과 내신 모두 부의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험 모두 상당한 양의 학습량이 요구됩니다. 공교육만으로 고득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인 한국에선 사교육에 매년 조 단위의 돈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수능은 수능만의 사교육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 강의비와 책값 부담이 크고 내신은 지엽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비반을 들어가기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중케어를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의 격차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강사가 만들어주는 예상문제들을 계속해서 풀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시험 문제에 더 익숙하게 접근하고 풀 수 있는 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최혜민 : 코넬트의 SAT 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집안 소득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한계점을 보였다. 그렇다면 SAT처럼 대입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지원 : 사회적 이동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다. 불평등 지수는 그 값이 0이면 개인의 성취가 가정환경과 무관하며, 1이면 최상위 성취 집단 중 최하위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 지수가 2001년 0.1 남짓이었으나, 2014년이 되면서 0.4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부모 학력 수준을 가정 배경으로, 자녀 수능 성적을 성취 척도로 하면 개천용 불평등 과목별 지수는 영어 0.7, 수학 0.6, 국어 0.5로 나타납니다.(주병기, 2019) 이렇게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노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박예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수능은 역할은 대학 입학 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능으로 인해 자신이 갈 대학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학 이후의 삶이 사회적 이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어느 대학을 가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혜민 : 책에서 입시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대학 입학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에 서울대 평의원회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 중 약 47%가 우울증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처럼 승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을 진정한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지원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을 '진정한'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한다. 경쟁은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경쟁이 사라지면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경쟁이 기업이나 대학 선발의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적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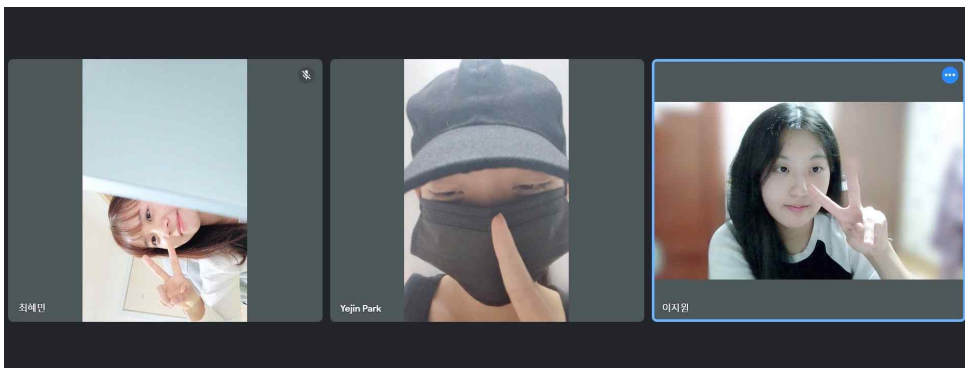
박예진: 승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은 진정한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결코 미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달려들어 경쟁이 심화될 수록 사회적 이동이 극적으로 보이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극도로 심화된 경쟁이 지속될 수록 사회는 침체되고 사람들은 우울해진다. 이 침체기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시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정부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으로 이 메커니즘을 바꿀 수 밖에 없다. 급격하게 변하든 점진적으로 변하든 기존의 경쟁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박예진: 저자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좋은 통치를 한다는 명제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계 관련 사람들은 대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지원 : 저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통치를 한다는 명제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 등의 높은 직책을 맡는 것은 사실입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대학을 가야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학벌'만으로 좋은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상 좌측의 인물부터 이름을 하단에 표기할 것.

인증 사진



최혜민, 박예진, 이지원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4 주차] 11 월 17 일 17 : 00	모임장소	상상베이스 세미나실
팀명	삼조	멘토교수	김선용
참여자	이지원, 박예진, 최혜민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p. 305 ~ p. 353

토론 내용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 최혜민: (p. 318) “또한 일의 존엄성 문제를 정치 어젠다의 중심에 놓는 일도 필요하리라. 그 일은 보기만큼 쉽지 않다. 다양한 이념적 배경에서 과연 무엇이 일의 존엄성이나에 대해(특히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시대에) 다양한 주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박예진: 제가 생각하는 일의 존엄성은 노동 그 자체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존엄성을 가집니다. 저는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연구원이 ai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 모두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존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지원 : 일의 존엄성이란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얻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존엄성은 사회적 인정과 기여적 정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공동선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인정을 받는 것이고, 기여적 정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에 따라 일의 존엄성이 저하될 수 있기에 능력주의의 오류를 깨닫고, 소비가 아닌 생산을 강조하고, 일의 가치와 의미를 논쟁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최혜민: (p. 323) “소비자와 생산자 정체성의 대조는 공동선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 방법에 주목하게 한다. 첫 번째로, 경제 정책 결정자들에게 익숙한 접근법은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이라는 것이다.”에서 공동선이 무엇인지에 관한 나름의 정의가 기술되었지만 조금은 관념적인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과연 ‘모든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의문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동선도 엘리트의 시각으로 바라본 선호와 이해관계의 산물이지 않을까?

이지원 : 제가 생각하는 ‘공동선’이란 사회적으로 약속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추구하는 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입니다. 이는 개인과 집단 모두가 공통으로 바라는 선입니다. 물론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시를 들으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협력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것,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박예진 : 책에서 말한 공동선의 정의인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감에 따라 모두의 생각이 바뀌면 공동선도 따라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은 엘리트 집단이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옳다고 여기고 똑같이 엘리트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기에 공동선이란 것도 엘리트에게 더 유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혜민: (p.351) 조건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의 예시로 미국 의회도서관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계층, 인종, 민족, 신앙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한 데에 모이는 공동의 공간은 무엇이 있을까?

이지원 : 우리나라에서 계층, 인종, 민족, 신앙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한 데 모이는 공간은 문화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 음악,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예진 : 공항, 도서관, 음식점 등 대부분의 장소가 어느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예진: (309p) 비대졸 노동계급원들이 트럼프에게 물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2022년 대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경제적 불평등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의 존엄성까지 떨어뜨리기에 엘리트가 아닌 계급들은 증오를 앞세우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원 : 능력주의 시대가 경제적 불평 뿐만 아니라 일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정착되어 있어 아예 다른 체제로 바꾸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지원 등의 정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이것이 일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민 : 경제적 불평에 이어 일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증오를 앞세운 정치에 호응하다보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와 또 이에 따른 각종 차별 및 혐오가 심화되는 굴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예진: (316-317p) 정부의 지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연방정부를 혐오하고 불신한다라는 말이 책에선 나와있습니다. 앨리는 그 원인을 경제적 박탈과 문화적 소외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우위에 서있다고 생각되는 인종인 백인에서 노동계급층에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는데 이들이 느낀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이지원 : 노동계급층에서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동자 보호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 계급층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노동계급층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계급층의 경제적 박탈감을 단기적으로 모두 해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쳐 노동 계급층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민 : 모든 노동이 그러하듯이 경제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백인 노동계층이 하는 일들도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져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노동계층의 인정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 정부를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는 백인 노동계층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원 : 오늘 책을 모두 읽고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저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과 책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내가 저자가 되어서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최혜민 : 저는 능력주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제목으로 바꾸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공정'보다는 '능력주의'에 따른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고 느껴서 제목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능력주의라는

키워드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예진 : 저라면 미국 백인 노동 계층의 추락이나 권위 하락 이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제목은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원래의 제목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잘 자극하기에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선 제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감

이지원 :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는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다. 혼자 읽기 어려운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책을 선정했다. 예상대로 이 책은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혼자 책을 읽을 때 힘들었다. 하지만, 팀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큰 어려움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 책을 읽으며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깨고,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불공평함과 편견을 드러내어 ‘공정함’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에 사회 현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던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책을 읽음으로써 사회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던 점이 좋았다. 다음 학기에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예진 : 단순히 혼자서 하는 독서활동과는 다르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이 아무 생각없이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에 그 생각에 매몰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교수님과의 토론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동시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독서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 대해선 불공정한 세상 속 좌절보단 나만의 새로운 길을 닦아 나가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 후기를 쓰고 싶습니다. 많은 배움을 얻는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찾아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최혜민 :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질문과 의견이 오가는 토론을 거치니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나아가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의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때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불공정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토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서토론을 통해 다른 도서를 읽고 또 토론을 진행해 보고 싶어졌고 추후 독서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천선란 작가님의「천개의 파랑」을 읽고 로봇이 인간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머지않은 미래에 관해 토론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 사진상 좌측의 인물부터 이름을 하단에 표기할 것.

인증 사진



박예진, 이지원, 최혜민, 김선용 교수님